

## 언어적요인에 의한 일본어 모호한 표현들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정 렬

### 1. 서 론

일반적으로 언어의 모호성은 어느 어종에서나 보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언어행위에서 모호성이 생기는 요인은 많지만 적지 않은 문헌들에서는 다의성을 기본 요인으로 보고 해석하고있으며 대상성에 따르는 명명에서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하면서 례 하면 《아침》이라는 어휘를 놓고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이 어휘에 해당되는가 등을 론하고 있다. 이것은 모호성이 과학의 한 분과로, 모호수학이라는 학문으로 등장하면서 제기되었고 정량적인 측면에서 연구된 결과이다.

론문에서는 일본어에서 나타날수 있는 언어적요인에 의한 모호한 표현들과 그 특성에 대하여 서술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곧 사람이다. 사람의 사상감정과 기호와 취미는 모두 말을 통하여 표현되며 그의 직업과 지식정도, 문화도덕수준도 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노동자와 농민의 말이 다르고 늙은이와 젊은이의 말이 같지 않은것은 그들의 직업과 연령,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데로부터 생 각하는바가 다르고 말하는 투가 같지 않기때문이다.》(《김정일전집》 제20권 131페이지)

일반언어학적견지에서 모호성은 인간의 언어라고 일컫는 자연언어의 해석에서 단어나 표현의 모호성, 문장번역에서의 모호성, 비논리적인 문장들의 모임들에서 논리적순차성이 없고 정보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한마디로 언어학에서의 모호성은 어휘, 문장, 단락 또는 그보다 큰 본문에서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둘이상의 내용으로 해석되거나 비논리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어휘, 문장, 본문이 다 결국은 다의성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여러가지로 해석되어 독자나 듣는 사람이 필자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리해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결국 다의성이나 동음이의어를 비롯한 여러 요인에 의하여 내용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수 있는 경우뿐만아니라 논리성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하나의 완결된 사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모호성이라고 규제하게 된다.

언어학분야에서 모호성에 대한 연구는 자연언어를 인공언어(기계언어)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밑에 응용언어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자연언어를 인공언어로 만드는 과정은 컴퓨터가 자연언어를 해석하고 기계언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20세기 중엽 이란의 조종과학자이며 수학자인 자데(L. A. Zadeh)는 론문 《Fuzzy Sets (모호모임)》 ("Information and Control", Vol 8, 1965)에서 처음으로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과학화하고 리론실천적로대우에 올려놓았으며 그후에도 여러 론문들에서 그 내용을

더 일반화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의 발전이 비상히 촉진됨에 따라 점차 응용언어학적견지에서뿐만아니라 일반언어학적견지에서도 모호성과 관련한 문헌들이 나왔다.

일본어학계에서는 1980년대이후 긴다이찌 하루히코(金田一春彦), 이와부찌 에쓰파로(岩淵悦太郎), 하야시 시로(林四郎), 미야지 유따까(宮地裕), 모리모토 데쓰로(森本哲郎)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일본어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일본어의 모호한 표현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일본어학자들은 일본어에서 모호한 표현이 생기는 요인은 첫째로, 일본인들이 자기 모국어를 능숙하게 쓸수 있도록 어학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에 있으며 둘째로, 필자들이 글을 쓸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부터 모호하게 글을 쓰는것이며 셋째로, 각종 정보의 확실성여부가 애매하여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쓰는데 있으며 넷째로, 조상전래로부터 애매하게 글을 쓰거나 말하도록 교육을 받아온 결과 언어생활에서 그것이 관습으로 굳어져 확정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데 대하여 거북한 느낌을 주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모호한 언어사용의 유혹》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일본인들로서는 그것이 더욱더 자연스럽고 응당한것으로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응용언어학적 및 일반언어학적 견지에서 모호성과 관련한 수많은 논문자료들이 출판되었으며 그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일본어의 모호한 표현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일본어교수실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그것들을 종합하여보면 아직도 전면적이고도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는 볼수 없다.

론문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의성 및 소리같은말, 수식어에 의한 일본어의 모호한 표현들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 2. 본 론

### 2.1. 다의성에 의한 모호한 표현들의 리해

원래 말은 대상에 대한 명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말할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달아주는것처럼 인간은 자기와 연관된것에 대하여 빠짐없이 이름을 붙였으며 이 과정에 말은 계속 늘어났다. 그래서 초기에 말은 반드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물과 대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이 나타내는 현실적인 개개의 사물과 1:1의 대응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말은 끝없이 늘어나 언어사용에서는 번잡성과 혼란이 조성되게 될것이였다. 이것을 피하자는 요구로부터 하나의 말에 비슷한것들까지 묶어서 다의성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사람들은 일반화의 수법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말은 점차 일반화된 것을 더 일반화하여 그것을 더 넓은 류개념으로 정리해나가는 식으로 발전되어나갔다.

일반화는 개별적인 사물, 현상들의 징표를 그것들이 속해있는 같은 부류의 모든 사물,

현상들의 공통적인 징표어로 확대하는 논리적수법이며 이 일반화과정에 다의성문제가 제기된다.

다의성이란 한 단어에 서로 련관된 두개이상의 어휘적인 뜻을 가지는 현상 또는 그런 특성을 말한다. 그러면 일본어에서 다의성에 의하여 어떻게 모호한 표현들이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하자.

### 2.1.1. 일본어조사, 조동사의 다의성으로 인한 모호한 표현들

일본어조사, 조동사의 다의성은 자립어인 경우보다 언어표현을 보다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례: 二人で行かない。(둘이서 가지 않는다.) …①

ピョンヤンから行く。(평양에서부터 간다.) …②

母と弟を待っている。(어머니와 남동생을 기다리고있다.) …③

레문 ①은 혼자서 간다는것인지 둘 다 가지 않는다는것인지 알수 없는 문장이다. 레문 ②는 평양에서 출발한다는것인지 먼저 평양에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것인지 알수 없는 문장이다. 레문 ③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을 기다린다는 뜻인지 어머니와 남동생을 둘 다 기다린다는 뜻인지 알수 없다.

이렇듯 조사 で, から, と는 그 다의성으로 하여 언어의 모호성을 야기시키는데서 자립어보다 그 작용이 비교적 강하다고 볼수 있다.

조동사의 다의성으로 하여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질수 있다.

전형적인 실례로 조동사 ようだ를 들수 있다.

《あなたは花のように美しい。》(당신은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문장을 오해할 사람은 없다. 이제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보자.

《あなたは花のように美しくない。》(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지 않다.)

이 문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花が美しいようには、そうはあなたは美しくない。》(당신은 꽃이 아름다운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리해할것이다. 다시말하여 《花が美しくないと同様にあなたは美しくない。》(꽃이 아름답지 않은것처럼 당신도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리해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것은 꽃이 아름답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자명한 리치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모호성이 생긴다.

례: 太郎は次郎のように利口でない。(다로는 지로처럼 령리하지 못하다.)

이 문장에서 太郎나 次郎에 대한 예비지식도 없고 문맥을 통해서도 예비지식을 얻을수 없는 경우를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해석을 할수 있게 된다.

① 次郎は利口で、太郎はばかだ。(지로는 령리하고 다로는 바보이다.)

② 太郎も次郎も同じくばかだ。(다로도 지로도 다 바보이다.)

③ 太郎も次郎も利口だが、太郎の利口さは次郎に劣る。(다로도 지로도 다 령리하지만 다로는 지로보다는 덜 령리하다.)

이 세가지 해석에서 어느것을 선택할것인가 하는데로부터 모호성이 생기게 된다.

우의 해석 ①-③은 조동사 ようだ를 없애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명백해질것이다.

① 太郎は次郎と違つて利口でない。(다로는 지로와 달리 령리하지 못하다.)

② 太郎は次郎と同様に利口でない。(다로는 지로와 마찬가지로 명리하지 못하다.)

③ 太郎は次郎ほどには利口でない。(다로는 지로만큼은 명리하지 못하다.)

일본어의 조사와 조동사는 우리 말의 토에 해당된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우리 말 토가 600여개인데 비하여 일본어조사, 조동사는 120개정도밖에 안된다는것이다. 산수적으로 하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본어조사나 조동사 하나가 우리 말의 5개이상의 토의 뜻을 담당한다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일본어의 조사, 조동사가 개개로 보아도 다의성정도가 매우 높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조사를 하나 잘못 써도 의미가 모호해질수 있다는것을 다의성의 견지에서 분석하였다.

### 2.1.2. 형식명사에 의한 모호한 표현들

다의성과 관련하여 형식명사에 의한 일본어모호성문제를 따로 설정하게 되는것은 첫째로, 일본어형식명사에 대응되는 조선어불완전명사의 수가 대단히 많은것으로 하여 번역에서 자주 애로를 느끼기때문이고 둘째로, 형식명사가 문장구성의 언어학적단위로서 매우 큰 몫을 차지하기때문이며 셋째로, 일본어에서 일부 형식명사가 형태적으로나 쓰임에서 완전명사와의 구분이 명백치 않은것으로 하여 일본어문장해석에서 모호성을 초래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일본어문법론에서 명사에 형식명사라는 개념을 갈라서 설정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형식명사란 명사로서의 실질적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항상 그 의미를 한정해주는 말과 함께 쓰이는 명사를 말한다.

일본어의 형식명사는 우리 말의 불완전명사에 해당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일부 형식명사들이 형태적으로나 쓰임에서 완전명사와의 구분이 명백치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즉 그것이 형식명사로 쓰이였는지, 완전명사로 쓰이였는지 분간을 못하여 모호성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학교교육단계에서 학교문법으로 형식명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완전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한자로 쓰고 말그대로 형식명사로 즉 실질적의미가 결여된 추상화된 개념으로 쓰일 때에는 히라가나로 쓴다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얼핏 보건대 빈틈없는 대책같으나 다만 학교교육단계에서 교육할 때 학생들속에서 이해의 혼동을 피하는데 목적을 두었을뿐 정식 규범화된것이 아니기때문에 필자마다 서로 다르게 쓰고있다.

현재 일본에서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글자표기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것은 매 출판사들이 저마다 표기규정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쓰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것들중의 하나가 형식명사의 표기이다.

례하면 その点은 《그 점(완전명사)》 또는 《그 문제, 그 측면(형식명사)》으로도 해석할수 있는데 출판물들에는 실지상 자기 마음대로 その点 또는 そのてん, そのテン으로 표기되어있다. 이것들은 문장속에서 한자로 썼다고 하여 완전명사로 보거나 히라가나나 가따카나로 썼다고 하여 실질적의미가 결여된 추상화된것(형식명사)으로 보아도 안된다.

일본어의 형식명사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こと(事)(…것, 일), もの(物)(…것), の(…것), ところ(所)(…곳), ため(為)(…때문에, …위하여), ゆえ(故)(…까닭에, …때문에), かわり(代)(…대신에), せい(精)(…때문에), うえ(上)(…는데서, …데다가), まま(儘)(…채로, …대로), ほう(方)(…편, …쪽), とおり(通り)(…대로, …와 같이), はず(筈)(꼭…것이다), わり(訳)(…수, 것), つもり(心算)(…것, …작정, …생각), おり(折)(…때, …기회에), てん(点)(…점), あげく(揚向)(…끝에, …결과, …나머지), たび(度)(…때, …때마다), よし(由)(리유, 취지, 까닭)…

그런데 다음의 예들에서 쓰인것들은 그것이 형식상으로나 의미상으로 볼 때 형식명사로 쓰이였는지 완전명사로 쓰이였는지 애매하다.

예: その折は大変失礼しました。(그때는 정말 실례했습니다.)

あのことは絶対秘密だぞ。(그 일은 절대비밀이야.)

何のために死んだか。(무엇때문에<무엇을 위하여> 죽었니.)(이 경우에는 형식명사ために에서 다의성이 나타난다.)

君のままにはならないよ。(네 뜻대로는 안될걸.)

この間に抜け出そう。(요즘에 빠지자.)

それゆえに忠告する。(그런 리유로 충고한다.)

うまいものが食べたい。(맛있는 음식을 먹고싶다.)

どうしても行けないわけがある。(도저히 갈수 없는 리유가 있다.)

우의 예문들에서 ために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의미가 있는 완전명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도 역시 형식명사로 쓰인 예문들이다.

이처럼 형식명사는 일본어에서 모호성을 야기시키는 인자들중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 2.1.3. 중지법에 의한 모호한 표현들

일본어에서 중지법이란 복합문에서 용언의 련용형으로 문장을 일단 중지했다가 계속 서술하는 방법이다.

예: ① 地上には自動車が走り、空には飛行機が飛ぶ。

(지상에는 자동차가 달리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난다.)

② 山は青く、水はすんでいる。

(산은 푸르고 물은 맑다.)

③ 体が丈夫で、頭もよい。

(몸이 튼튼하고 머리도 좋다.)

우의 예문들은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의 련용형중지법의 실례들이다. 이외에도 일본어 문법론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련용형에 조사 て가 붙은것도 중지법으로 취급하고있기때문에 론문에서는 이것도 중지법에 포함시켜 연구하기로 한다.

— 동사련용형에 て가 붙은것

手のひらを結んで、開いて、手を打って…(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서 박수를 치고…)

— 형용사련용형에 て가 붙은것

おとなしくて、利口な犬(순하고 명리한 개)

중지법에서는 て가 붙은것은 て중지법, 붙지 않은것은 련중지법이라고 한다.

책마다 조금씩 차이하는데 て가 붙지 않은것은 1중지법, 붙은것은 2중지법으로 서술된것도 볼수 있다. 본문에서는 て중지법, 령중지법으로 설명하겠다.

중지법을 리용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다. 그것은 중지법에서는 중지형으로 문장을 끝낼 대신에 일단 도중에 중지했다가 계속 문장을 이어주기때문이다. 폐하면 《風が吹く。そして、花が散る。(바람이 분다. 그래서 꽃이 떨어진다.)》라는 두개의 문장은 중지형 《吹く》를 련용형 《吹き》로 바꾸어 련용형중지법으로 하면 《風が吹き、花が散る。(바람이 불고 꽃이 떨어진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된다.

이렇게 중지법을 써서 계속 련결하면 얼마든지 문장을 길게 할수 있다.

그러면 중지법을 써서 문장을 길게 만들었다고 하여 그 문장이 까다로운것으로 되겠는가? 결코 긴 문장이기때문에 난도높은 문장이나 모호한 문장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원래 중지법을 리용하는 목적은 주어를 겸용하기때문에 문장길이를 줄일수 있으며 특히 문장내용에 빈틈을 주지 않고 전개할수 있다는 우점을 살리는데 있다. 즉 《그리고 결합》(～. 그리고 ～. 그리고 ～. …형의 문장묶음)으로 련결된 문장은 중지법으로 바꾸어도 결코 읽기 힘들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고 결합》대신에 쓰이는 중지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 다음 문장의 경우에 《予防し》는 어색한 느낌을 준다.

XXは悪性感冒によく効き、肺炎を予防し、肺炎の場合も極めて短時日に症状をとりますから確実で安心できます。(XX는 악성감기에 효력이 있고 폐염을 예방하며 폐염인 경우에도 극히 짧은 시일에 증상을 제거하므로 확고하게 마음놓을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리고 결합》을 하나로 묶은것인데 일반적으로 병렬관계의 중지법은 花咲き、鳥歌う처럼 짝을 맞춘 글귀(대구)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의 레문은 대응되지 않는 내용을 병렬관계로 놓았기때문에 문장이 어색해진것이다. 이 관계는 모호한 언어표현으로까지 번져질 가능성이 있다.

레: 神経痛リューマチにXXXXXXを1～2錠おのみになれば、痛みやはれに直接働いて、副作用がなく、すぐれた効き目を表します。

(신경통류마치스에 XXXXXX를 1～2알 잡수면 아픔이나 부종에 직접 작용하여 <작용하며> 부작용이 없고 뛰어난 효력을 나타냅니다.)

얼핏 보건대 정확한 문장같지만 《XXXXXX이 아픔이나 부종에 직접 작용하기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것인지, 《～작용하며 부작용도 없다》는 뜻인지 알수 없는 모호한 문장이다.

중지법의 기본적인 용법은 동작이나 작용의 련속이다. 따라서 병렬인 경우도 글을 보는 사람들은 동작의 련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지법에서는 시간이나 인과관계를 하나의 직선상에 놓이도록 련결하는 경우에는 별일없지만 많은 굴절을 가진 문장에서는 모호성이 반드시 제기되기마련이다.

중지법의 기본적인 용법이 동작이나 행동의 련속이라고 했으나 그것을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 용법들도 있다.

레: ① 동작, 작용의 련속

朝六時に起き、散歩をした。(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보를 했다.)

手のひらを結んで、開いて、手を打って(손바닥으로 주먹을 만들고 펴고 박수를 치고)

② 병렬

この服用で食欲が進み、痛みもとれ、美肌となります。(이것을 잡수면 식성이 좋아지고 아픔도 없어지며 살결도 고와집니다.)

空高く、雲白い。(하늘은 높고 구름은 희다.)

海は静かで、風も暖かい。(바다는 조용하고 바람도 따스하다.)

③ 원인, 이유

雨に濡れ、かぜをひいた。(비에 젖어 감기에 걸렸다.)

多くの人から進められ、出版をきめた。(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雨降って、地が固まる。(비가 내려서 땅이 굳어진다.)

④ 방법, 수단

動物を使って、実験する。(동물을 써서 실험을 한다.)

⑤ 반대되는 관계

10メートル下に転落し、けがもしなかった。(10m 아래에 굴러떨어졌으나 부상도 입지 않았다.)

知っていて、知らないふりをする。(알고도 모르는체 한다.)

중지법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용법이 있다가니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편리한 용법이라고 할수 있다. 레하면 見たのでわかった도 見たのに知らぬ顔をしている도 다 見てわかった, 見て知らぬ顔をしている와 같이 見て로 바꿀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쓰는데는 이렇게 편리한 중지법이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그것은 한가지 형태만을 보고 어느 의미로 쓰인것인지를 파악해야 하기때문이다. 見たのでわかった인 경우에는 見たので까지만 읽어도 원인이라는것을 알수 있지만 見てわかった인 경우에는 見て까지 읽어서는 병렬, 원인, 방법중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수 없다. 이것은 읽는 사람의 부담을 더해주는것으로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리해할수 있는 원인으로 되기도 한다.

레: 《私はおなかが弱く、よく熱を出します。》(나는 속이 나쁘며 <나빠서> 자주 열이 납니다.)

레문에서는 속이 나쁜것과 열이 나는것을 동급으로 놓은것인지 아니면 속이 나쁜것이 원인으로 되여 열이 나는것인지 알수 없는 모호한 문장이다.

레: 《油断していて、気がつかないことがあります。》(해이되어서 <해이되고> 감촉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해이되었다》와 《감촉못했다》가 서로 병렬관계로 되였는지, 해이되었기 때문에 (油断していたために) 감촉못했는지(원인), 해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이된것을 감촉하지 못한것인지 알수 없는 모호한 문장이다.

레: 《いやな雨が続きます。お宅の樋は腐って雨もりしませんか。》(비가 지루하게 계속 내립니다. 댁의 수채통이 부식되어 비가 새지 않습니까?)

만일 레문과 같은 신문광고가 있다고 하자. 이 문장에서 腐って를 腐っているのに (부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하면 이 광고문을 읽는 독자들은 불쾌한 느낌을 받을것이다.

련용형에 의한 중지법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접속조사 て를 붙여쓰는 て중지법과 접속조사 て를 쓰지 않는 령중지법이 있다. 이것을 가려쓰는 원칙은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로, 이미 앞에서 언급한 중지법 5가지중에서 ①-②는 령중지법이, ③-⑤는 て중지법이 많이 쓰이고있다.

둘째로, 령중지법은 낯은 말투의 느낌을 주며 て중지법이 참신한 느낌을 준다. 즉 て중지법이 보다 입말적이라고 할수 있다.

중지법은 그 기능이 풍부하고 도중에 중지했다가 계속 문장을 련결할수 있기때문에 쓰기가 매우 편리한데로부터 되는대로 글을 쓰는 편향이 생기기 쉬우며 이로부터 문장의 전반적내용은 뚜렷하지 못하고 모호해진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험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문법적관계를 나타낼수 있다는것은 모호성발생의 기본요인으로 된다. 이런 문장들은 거의다 읽기는 험한 문장들이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문장들이다. 그리고 일단 파고들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자면 모호한 언어표현으로 하여 혼동에 빠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련용형중지법의 약점이 있으며 이것은 모호성을 극복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더 잘 알수 있게 해준다.

## 2.2. 소리같은말에 의한 모호한 표현들의 이해

소리같은말은 말소리구성은 같지만 의미는 서로 다른 단어이다. 다시말하여 어음적외피는 꼭 같지만 그것들이 서로 다른 대상이나 개념과 상반됨으로써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きし야는 貴社(귀사), 記者(기자), 帰社(회사로 돌아옴), 汽車(기차) 등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貴社の記者が汽車で帰社する。》(귀사의 기자가 기차를 타고 회사에 돌아온다.)라는 유모아적표현도 나온것이다.

이것들은 말소리구성은 같지만 의미는 서로 다른 소리같은말의 계열에 속한다.

언어발전과정을 보면 다의성과 마찬가지로 소리같은말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언어적현상이다. 이미 다의성에 반영된 언어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분석하였다. 그러면 소리같은말에서도 모호성이 제기되겠는가? 한마디로 언어환경과 문맥 등을 통하여 소리같은말에서는 모호성으로까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어표기에는 한자가 쓰이므로 어느 정도 극복되고있다. 예를 들어 かんしょう에는 干涉、鑑賞、感傷、冠省、觀照 등 18개의 소리같은말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자로 표기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구분된다. 동사와 형용사 등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리같은말에 의한 모호성은 입말로 진행되는 언어행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다.

## 2.3. 수식어에 의한 모호한 표현들의 이해

무엇보다도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명사와 동사관계는 조사로 표현된다. 이 경우에 조사는 대부분 다의성을 가지기때문에 같은 조사로 수식하면 뜻을 파악하기 힘



들게 되며 그 결과 문장이 모호해진다.

예: 毛布、タオル、食器類など百二十点を被災9世帯に見舞品におくった。

(모포, 수건, 식기류 등 120점을 피해를 입은 9세대에 위문품으로 보냈다.)

번역문은 명백하다고 할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다의성이 많은 조사 に를 반복한것으로 하여 문장의미가 명백치 못하다. 뒤부분의 見舞品には 見舞品として라고 해야 문장의미가 명백히 안겨온다.

예: 山形県では、このあいだ県内にすんでいる動物や植物を学者たちに調べてもらいました。

(야마가타현에서는 요사이 현내에 살고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학자들에게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植物(식물)도 すんでいる(살고있다)로 되어버린다. 動物や까지 와서 すんでいる에 주목하지 못한 모호한 문장으로 된것이다. 동물이 すんでいる(살고있다)라면 식물은 はえている(돌아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すんでいる도 はえている도 생략하여 県内の動物や植物を로 하면 오히려 문제될것이 없을것이다.

예: 子供はパンと牛乳を飲ませて寝かせてあるから大丈夫だ。

(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마시게 하고 잠을 재워놓았으니 일없다.)

이 문장도 우와 같이 수식관계를 바로 설정하지 못한 언어표현이 모호해진 실례이다. 빵까지도 마시게 할수 없는것이며 パンと牛乳をのみくいさせて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런 형식이 겹쳐들면 다음과 같은 엉뚱한 해석까지도 생기게 된다.

예: 水上なら、勤務先の会社から船を借りて生活しても家賃もいらない。水、燃料など不便は多いがそれだけに経費もかからない。また、騒音に悩まされたり、近所づき合いの気がねもいらないといったよさもある。

(물우에서의 생활이라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배를 빌려 생활해도 집세도 필요없다. 물, 연료 등 불편한 점은 많지만 그만큼 생활유지비도 절약된다. 또한 소음에 애를 먹기도 하고 동네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 안써도 된다는 우점도 있다.)

타리는 부조자로서 반드시 대응되는 타리가 한개이상 더 대응되어야 한다. 게다가 소음에 애를 먹는것과 동네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을 안쓴다는것이 병렬관계처럼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騒音に悩まされるといったよさもある》(…소음때문에 애를 먹는다는 우점도 있다.)는 이상한 문장으로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騒音に悩まされたり、近所づきあいに気をつかったりしないですむといったよさもある》(…소음때문에 애를 먹거나 동네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수 있다는 우점도 있다.)라고 해야 모호성이 해소될것이다. 더 좋기는 《たり…たり》를 다 없애고 《…騒音や近所づきあいのうるささが無いといったよさもある》(…소음이나 이웃과의 시끄러운 일들이 없다는 우점도 있다.)라고 하면 보다 명확해지면서 표현이 명료해질것이다.

다음으로 문장이 길어지거나 급히 쓴 문장들인 경우에 앞에서 쓴 내용을 잊고 뒤부분과 연결이 잘 안되어 문장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 これは現在内職程度にしかやっていないピアノ教授を将来増大する子供の教育費にそなえて専念したいと思っている。

(이것은 현재 부업정도로만 하고있는 피아노교수를 앞으로 늘어나는 자식의 교육비에 대처하여 전심하고싶다고 생각한다.)

이 레문에서 ピアノ教授を専念したい(피아노교수를 …전심하고싶다)라는 표현이 모호해진다. 이것은 ピアノ教授を…本職にしたい(피아노교수를 본업으로 하고싶다)와 《ピアノ教授に…専念したい》(피아노교수에 전심하고싶다)라는 두가지 의미로 이해될수 있다. 그 원인은 将来増大する子供の教育費にそなえて가 짬에 끼여들어갔기때문이다. 専念したい가 ピアノ教授의 바로 뒤에 있다면 필자는 명백히 ピアノ教授に로 했을것이다.

예: 荷物は必ずルックサックに入れて、ボストンや手提カバンなどで手をふさぐのは登山に不向である。(짐은 반드시 배낭에 넣고 여행용가방이나 들고방 등으로 빈손이 없게 하는것은 등산에 적합치 않다.)

필자는 이 문장을 《ルックサックに入れて、ボストンや手提カバンなどは持たないようにすべきである》(배낭에 넣고 여행용가방이나 손가방 등은 손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쓰려고 했을것이다. 결국 이것도 전후관계를 바로 수식하지 못한 결과로 생기는 모호성인것이다. 제대로 되자면 《ルックサックに入れて持つべきである。ボストンや…》(배낭에 넣고 들어야 한다. 여행용가방이나…)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문장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하나의 문장이 지내 길어서 쓰는 사람이 전반적인 구조를 놓치는데 있다.

문맥의 혼동은 대응관계를 헛클어놓으며 결과적으로 문장을 모호하게 한다.

일본어에서는 긍정, 부정, 추측 등 필자나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 문장의 끝부분에 온다.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고서야 비로소 …ではない(…이 아니다), …かもしれない(…런지 모른다) 등의 표현에 맞다들려 허무하고 망랑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고하는 부사》를 적극 리용하는것이 좋다. 《예고하는 부사》란 おそらく(아마)、きっと(꼭)、けっして(결코)와 같은 말하려는 내용앞에 놓이는 부사를 말한다. 이것들을 쓰면 처음부터 추측이나 부정이 뒤따를것이라는 예고를 할수 있다. 레하면 けっして(결코)가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부정표현이 있게 된다. 이런 대응관계가 문맥의 혼란으로 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모호한 문장으로 되고만다.

예: 二十日の拡大大会も必ずしも予定通りには経過する見通しが困難になったことに対し… (20일에 예견한 확대대회도 반드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 곤란해진데 대하여…)

必ずしも(반드시)는 보통 부정어와 대응관계를 가지면서 《반드시 …라고는 할수 없다》로 된다. 때문에 레문은 《必ずしも予定通りには経過しないと見られるのに対し…》(반드시 예정대로는 진행되지 않을것으로 보아지는데 대하여…)라고 해야 모호성문제가 해소되어 문맥이 통하게 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수식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판단할수 없는 경우도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질수 있다.

예: むずかしい子の教育라는 표현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むずかしい「子の教育」(힘든 《어린이교육》)

「むずかしい子」の教育(《까다로운 아이》에 대한 교육)

즉 むずかしい(어렵다)라는 수식어는 子(어린이)를 수식했는지, 教育(교육)을 수식했는지 모호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모호한 문장들과 흔히 맞다들리곤 한다.

문법적관계를 따지면 어느 쪽이라고 판단할 아무러한 근거도 없는 매우 모호한 문장이다.

다음으로 수식어가 여러개 련달려있는 경우도 모호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식어가 여러개 련달려있는 경우 어느것을 우선시하는가 하는것은 대체로 필자의 결심에 따른다.

예: 白い大きな花(희고 큰 꽃)

大きな白い花(크고 흰 꽃)

이 두 표현에는 수식어의 순서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白い와 大きな처럼 성질도 길어도 비슷한 수식어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지만 성질이나 길이에서 차이가 있는 수식어들에서는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모호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일본어에서 수식어를 정확히 쓰기 위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① 긴 수식어를 쓰지 말것.

②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의 바로 앞에 놓을것.

③ 긴 수식어와 짧은 수식어가 있을 때에는 짧은 수식어를 피수식어의 앞에 놓을것.

그런데 이런 조건을 잘 지키지 않고 글을 쓰면 때로는 문맥이 통하지 않고 문장의미는 모호해질수 있다.

예: 両国は軍縮を段階的に核兵器の削減に重点を置いて進めるという方式をとることに意見が一致した。(두 나라는 군축을 단계적으로 핵무기의 삭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시키는 방식을 취하는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레문은 여러개의 수식어가 혼탕된것으로 하여 문맥이 통하지 않는 모호한 문장이다.

여기서 ①軍縮を, ②段階的に, ③核兵器の削減に重点を置いて이라는 세가지는 다 進める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며 같은 자격으로 작용하고있다. 그러므로 ③을 ①, ②의 앞에 가져가서 《両国は核兵器の削減に重点を置いて軍縮を段階的に進めるという方式をとることに意見が一致した。》(두 나라는 핵무기의 삭감에 중점을 두고 군축을 단계적으로 추진시키는 방식을 취하는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라고 하면 모호성이 극복된 명확한 문장으로 된다.

예: 電気ガマの目盛りが、老境のものには判然とせず、使うたびに落ちない色が染めてあったらと思います。(낡은 전기밥가마의 눈금은 늙은이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 쓸 때마다 바래지 않는 색이 칠해져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使うたびに(쓸 때마다)라는 수식어를 피수식어 思います(생각합니다)의 바로 앞에 놓아야 문장의 의미가 명백해진다.

즉 《電気ガマの目盛りが、老境のものには判然とせず、落ちない色が染めてあったら使うたびに思います。》(낡은 전기밥가마의 눈금은 늙은이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 바래지 않는 색이 칠해져있었으면 하고 쓸 때마다 생각합니다.)라고 고치면 모호성이 극복될것이다. 원문과 대조하면 使うたびに落ちない色(쓸 때마다 바래지 않는 색)로 련이

어 련결된 문장으로 이해할수 있기때문이다. 물론 使うたびに의 뒤에 반점을 쳐도 되겠지만 그래도 모호성은 극복하기 힘들다. 쓸 때마다 색이 바래지기때문에 바래지지 않는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다는것인지, 혹은 바래지지 않는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다고 밥가마를 쓸 때마다 생각한다는것인지 가려볼수 없는 전형적인 모호한 문장으로 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앞에 놓이는것이 원칙이지만 실지 회화에서는 이 원칙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어순바꿈의 수법이 입말에서는 자주 리용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모호성문제가 제기되겠는가?

예: じゃ、待っているよ、外で。(그럼 기다리겠네, 밖에서.)

なんてったけ、あの人、あの、いつも来る、おしゃべりの。(뭐라고 하더라, 그 사람, 그, 늘 오는 다사스러운.)

글말에서는 이러한 어순바꿈을 리용하는 경우가 적지만 그대신 괄호 등으로 수식어를 피수식어의 뒤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식어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모호성을 야기시킬수 있기때문에 괄호 등으로 묶어서 이 부분을 피수식어의 뒤에 놓으면 문장흐름을 따라 문장의 핵심으로 되는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사이의 구별이 명백해져 읽기 쉬워진다. 그러나 괄호안의것을 보고 다시 그전의 문장으로 되돌아서 보아야 하는 번잡성이 제기된다. 이것은 모호성과 관계없지만 잘된 글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피수식어를 반복하여 써서 극복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어순바꿈의 수법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모호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 3. 결 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교육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말과 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리론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깊이 있게 진행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과학적도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론문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일본어에서 언어표현을 모호하게 만드는 언어적요인들인 조사와 조동사의 다의성, 형식명사, 중지법, 수식어 등에 의한 모호한 표현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리론적해명을 주려고 하였다.

론문은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이 필요되는 정황에서 상대방에게 혼동을 줄수 있는 일본어의 언어적요인들을 잘 알고 일본어교제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어의 모호성문제를 비롯하여 외국어습득과 교수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수사업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을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모호성, 다의성, 수식어, 소리같은말, 접속조사